

학생회 와해위한 탄압 가중

이기현군등 구속으로 총학운영 차질

이기현(사회대 무역·4)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심민성(경경대 무역·4)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등이 구속, 방학중 학생회에 대한 탄압이 가중됐다.

지난 12일 이기현군은 한국의 국어대 용인캠퍼스에서 열린 제4기 통일학교를 마치고 '법민족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연세대로 가던중 용인경찰 소속 정·사복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피업전

야, 불법상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14일 수원교도소에 수감됐다. 또 심민성군은 지난 7월10일 광주 자택에서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대해 양캠퍼스 학생들이 구속자 석방을 위한 집회등의 투

방학중 보수·이전공사 실시 개강맞아 미비시설 보완위해

양캠퍼스 사무처는 하계방학중에 학교 전반에 미비시설에 대한 보수이전공사를 실시했다.

서울캠퍼스는 법과대학 5층 도서관 및 캠퍼스 공사, 음악대학 음악감상실 보수공사, 물탱크(명상대) 보수, 정문 통풍소 및 도로 보수·도색공사를 완료했으며 음악대학 음악감상실 보수공사는 이번주내로 완료한다.

수원캠퍼스는 자연대학과 뒤 연못공사, 공과대학관과 체육대학관 계단공사, 학과간이전 건설

장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수원캠퍼스 학생 30여명은 수원교도소 앞에서 구속된 이군의 면회거부에 항의, 연좌농성을 하던 중 전경과 몸싸움으로 백인중(중문·2) 신장호(행정·3)군이 부상당하고 전원이 연행되기도 했다. 또 심민성군 구속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7월18일 규원집회를 갖고 교문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총학생회 주요간부의 연행으로 수원캠퍼스 경우 2학기 총학사임이 늦어지고 있으며, 서울캠퍼스는 지난 7월25일부터 김종원(신방·4) 총학생회 선전부장,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맡는 등 서울·수원 총학생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배성철(국문·4) 교황교사

감초회 의료봉사활동

지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천원군 상남면 일대에서 봉사 동아리 감초회가 여름 의료봉사 활동을 벌였다.

전체 교수회의 지난21일 개최 이영재교수와 2명 정년퇴임식도

'90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 및 전체교수회의'가 지난 21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1부 정년퇴임식에서 이영재(자연대·물리학과)교수, 김종원(치대·치위협)교수, 구도서(의대·의학)교수가 퇴임식을 갖고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하게 된다.

이어 진행된 2부 교수회의는 신입교원 소개, 각 부서별 업무 계획보고 등이 있었다.

서초-신갈행노선 학교까지 연장 평일 20차례, 공휴일 2차례 운행

서초부터미널에서 신갈까지 운행되던 직행버스가 지난 20일부터 수원 캠퍼스까지 연장운행되고 있다.

평일 20차례, 공휴일 2차례로 운행되고 있는 직행버스의 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도고: 7:45 8:00, 15:30, 45 9:00, 20, 40 10:00, 40 11:20 12:40 14:00, 40 15:20 16:00, 40 17:20 18:00, 20 ▲하교: 8:40 9:00, 15, 30, 45 10:00, 20, 40 11:00, 40, 12:20 13:40

서울인복위 아르바이트생 선발 차량통제·매점·식당 등 총55명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차량통제 20명, 매점 30명, 식당 5명 등 총 55명에 대한 아르바이트학생을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학부모과에 65%, 거주지 20%, 학부모연령 15%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오는 31일까지 인복위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선발자 공고는 9월3일 오후 5시 학생회관 2층식당에서 있다.



여자하키팀 소련과 친선경기

본교 여자하키팀은 지난 23일 소련 우즈베크공화국 타슈켄트 시 트리토탈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 경기에서 여자하키팀은 전반 28분경 이영미선수가 선취골을 따내 1대0으로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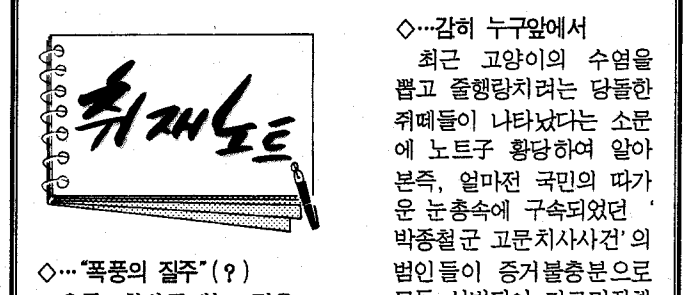
한편 여자하키팀은 지난 18일 소련 팀들과 친선경기를 치렀다.

또한 수원캠퍼스 체육과학대는 지난 21일 열린 교수회의에서 91년부터 남자배구팀을 창단하기로 결정했다.

수원 직통교환방식으로 교체

수원캠퍼스 총무과는 다음달 1일부터 전자교환방식(DOD)을 직통전화교환방식(DID)으로 바꾸어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에서 학교까지 전화번호의 국번은 280이 내선번호는



반갑지 않은 개강의 소리

◇...갈매기 누굴에서
최근 교양이의 수업을 받고 출렁거리려는 당돌한 취재들이 나타났다. 소련에 노트를 황당하여 알아본즉, 얼마전 국민의 따가운 눈총속에 구속되었던 박종철군 교문지사사건'의 법인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석방되어 기고만장해 있다는데.

나랏님들, 아직도 어수선한 정국을 발리로 입썅으려는 알뜰한 속셈이 너무도 알뜰구려.

◇...자학중세 유감
카멜레온같은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현정권이 또 다시 '정신분열증'을 보여 뜻사람들을 당황케한 듯.

법민족대회를 기만적으로 처리한 것이 엇그제인데 이번엔 또다시 통일불과 재판을 놓고 집안싸움으로 티격태격.

나랏님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옷차림을 바꾸어도 관공이 변할 턱이 없을진대 집안문제나 신경쓰시는게 어떨런지.

◇...개강의 소리
밤새 꺼지지 않는 도가비왕국의 불빛과 함께 개강을 알리는데 한몫 더하는 소리였다는데...

지칠 줄 모르고 질러대는 '뽕파' 장단으로 고향골을 뒤흔드는 뽕령들, 유혹소외의 침묵정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지라.

졸준위, 졸업준비금 수납

양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는 90학년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양캠퍼스 경리과에서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졸업준비금을 수납한다.

졸업준비금은 앨범비3만5천원, 기념품비 8천원, 장학금 1000원을 포함하여 4만3천3백원이며 영수증은 각 학과사무실에서 받아가면 된다.

제7기 전대기련총회 개최

제6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이하 전대기련)총회 및 제7기 전대기련 출범식'이 지난 7월13일부터 3일간 전남대에서 개최됐다.

총회기간중 각 지역기련 및 사업평가와 '전선학교', '전대기련 대동한마당'이 진행되었다.

또한 '전대기련 제7기 출범식'에서 부산대신문사 윤중오원집장이 신임의장으로 선출됐고, 기련별 의장단이 출범했다.

본교출신직원 장학기금마련

본교출신 직원장학회 '동통회'는 이번 학기부터 2개단과대학에서 각 1명씩 매학기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하게 된다.

선발기준은 본교 재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점이 2.5

이 시대 '新反民特委'의 부활을 기다리며...

얼마전 TV에 '반민특위'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상처투성이 뿐인 우리에 대한 36년간의 치욕과 통탄이 그날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현실을 불수 있던 기회였다.

특히, 친일비판이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데올로기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과 당시 육성이 뒤섞인 지도층으로 인해 진정한 지도자까지 불신을 당해야 하는 불행한 기억들을 되살려 주었다.

이승만의 반공 최우선 정책으로 친일 반민족주의자의 최결의 기회를 잃게 되고 5·16군사독재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약속을 가속하는 한편 친일세력의 권력과 부를 합법화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혼돈된 민족의 분열을 방치하게끔 했다.

이제는 끝 일제잔재와 친일파의 일소없는 민족의 대단함과 통일이라는 새로운 민족의 도약기회는 공멸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일제잔재는 그 뿌리가 깊어져 친일파의 후손은 계속 이 나라에서 이권을 지니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르침도 못받고 물려받은 것조차 없는 가난과 무지로 살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비애는 한사람만이 느끼고 극복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아니고 모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 지금의 우리를 돌이켜 보면 의식하거나 무의식중에 우리 스스로 일제의 경제·문화적 약속에 그저 무비판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일제 식민잔재가 채 가시지 않은 몰골이 들어왔던 서구의 퇴폐와 소비문화가 지금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문화적 패락과 타락, 부패가 누적되어 일본것을 배가기식의 대중문화적 요소들이 판을 치고 있다.

웬만한 미장원이나 유흥업소는 일본의 'Nonno'라는 패션잡지들이 널려있고 일본만화, 식품까지, 더욱이 안방에는 1백만원짜리 파라볼라안테나를 설치해 일분위성 TV를 직접 시청하고 있다. 여기에 요즘엔 어떤 아파트의 경우 한 동이 공동안테나를 세워 입주자 전체가 일분위성방송을 수신해 보고 있다니 놀랄 수 밖에 없다.

개인주의와 철저한 소비문화로 흘러가는 현대의 젊은이 들은 맛모르는 추종자로, 기성의 우리네 어른들은 식민교육과 일제군대식의 사고로 아직까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친일세력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36년간의 뼈저리는 기억들은 아파하면 서도 다시 일제문화에 대한 미련과 동경은 우리들의 무의식속에 이 시대의 새로운 착임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통치의 열'이 일제잔재의 모든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도층의 주장은 뿌리깊숙이 계속되는 일본의 문화적 약속에 대한 실각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들 또한 경제적 욕구로 인해 문화적 주체성은 간과해고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임초)

학원소식

교수동정

김연중교수 모스크바 방문

▲최용득(단대·의학과)교수=지난 8월16일부터 27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제15차 국제암학회'에 논문발표 ▲장진(물리학과)부교수=지난 8월22일부터 24일까지 SSDM '90에 참석차 독일 ▲김연중(의대·중문과)교수=지난 25일부터 9월3일까지 제12차 세계화국과학회'의 참석차 '소련 국립과학원' 초청으로 모스크바 방문 ▲김광석(경제과)교수=지난 8월2일부터 18일까지 경제연구와 학

세화고·여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세화고·여고 동문회 29일 5시, 해방터 ▲대일의고=30일 오후 5시, 문리대앞 ▲동대부고·영성여고=30일 오후 5시, 체대앞 녹원 ▲안동고=31일 오후6시, 수화장 ▲조선대부고(남·여)=31일 오후5시, 체대앞

【수원캠퍼스】▲순천고=29일 오후5시, 국기계양대 ▲울산향우회=31일 오후5시, 1호관 휴

등기

등기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황상호(영문·1) ▲조영래(사학·3) ▲김해정(수학·1) ▲김선희(사학·1) ▲김형태(화학·4) ▲강정희(화학·1) ▲박산향(의상·3) ▲김민정(기관·3) ▲김민성(영·2) ▲윤준남(미교·3) ▲김형식(미교·4) ▲정계향(미교·2) ▲서정환(법·2) ▲유정섭(행정·3) ▲김기연(간호·2) ▲장동민(한·2) ▲박종배(한·1) ▲이준형(치·4) ▲이광배(치·4) ▲이경란(한·1) ▲이원백(미교·4) ▲이준주(물리·2) ▲남정균(화학·4) ▲최은희(식업·1) ▲김진(지리·4)

金剛山 종단 말을 風便에 년짓 듣고

알뜰알뜰타령조에 어깨춤을 추면서 개개춤, 고개잡이, 명성말이, 곰사위, 여단이 춤까지 걸판까지 주어보고, 암암진 소우하며 파계승도 한 몫하고, 목베고 구경하던 우리네 뺑뺑이도 덩실덩실 춤을 추세!

악눌러 한탄일, 세상사더러운 일 갱과리 장단속에 산방나게 풀어보자. 음중도, 취발이도, 말뚝이도, 샌님도 한마당 어울리면 우리는 한민족—

탈춤이란 민중의 공동체 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엮어온 대다수 민중의 뜻과 맘의 결집이 독창적 극형식에 의해서 꾸며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민족의 독창적인 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어제의 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태적인 답습이 아니라 동태적의 지변천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어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문화를 전승해갈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대한항공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긍지 ① 양주별산대

강기도 양주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탈춤. 전 팔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양반의 축첩과 파계승들의 패해를 소재로 힘이 넘치는 춤사위와 해학이 번득이는 대사를 주고 받으며 연희한다.